

주의 세례 축일

제1독서 : 이사42, 1-4, 6-7

제2독서 : 사도10, 34-38

복 음 : 루가3,15-16.21-22

순정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가3, 22).

강론

“하느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성민호 신부 / 황등 천주교회

오늘은 예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의 세례 축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현 대축일에 예수께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심으로써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리 오신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알려주신 사실을 경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믿음직스러운 요한의 증언을 들려주시고 더욱이 삼위일체이신 성삼의 발현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이 천주성자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발현과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장엄하게 공포하셨고 그 세례는 성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과연 주님은 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베푸시는 세례야말로 요한의 증언과 천주성삼의 발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보아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세례이며, 모든 죄를 태워 없애버리는 불의 세례인 동시에 성령의 강림으로 사람을 새로이 탄생시키는 재생의 성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분부를 따라 성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마치 옛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같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머무시는 궁전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신비체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뽑으시어 지존하신 하느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세례의 은총이야말로 참으로 큰 은혜이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특은입니다. 비록 예식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성령의 작용으로 엄청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구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친히 세례를 받으시는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한해도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그분의 마음에 드는 자녀답게 살아 갑시다.

‘하느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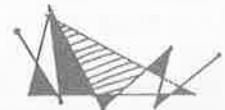
소리

“투표로 말하자”

또 해가 바뀌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무언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두 손을 모아 보아도 웬지 자꾸만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기만 한다. 상습적인 날치기꾼들로 치기(稚氣)에 들떠 있는 정치판, 줄대고 돈버는 정경유착(政經癒着)의 여전함, 세월이 가도 쉽게 메워지지 않는 동서(地域感情)의 골, 윗물이 흐른 틈을 타고 때를 만난 듯이 날뛰는 망둥이들의 분탕질(過消費)과 못된 짓(犯罪)들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맥없이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정신을 가다듬고서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다가는 어떤 결과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역사를 이렇게 끝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아니, 우리가 서로 노력하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노력의 하나로 여러 차례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올해에는 우리 모두 주권자의 자리를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로 말하는 참다운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 공명한 선거를 통해서 정치질서가 바로잡히면 나머지 얼크러진 매듭들도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두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에 터잡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이 시대의 십자가라는 것도. [㉠]



순정이 산책



주의 세례 축일을 맞이하여 신자들의 글을 소개합니다.

“함께하시는 그분”

김 영 주(프란치스코)/용머리 성당

작년 9월28일 첫영성체를 할 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단 위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을 우러러보며 온 몸을 전율하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는 많은 좌절과 방황 속에서 20여년을 살았습니다. 내 존재가치를 시험해보려고 스스로 전장에 뛰어들기도 했으며, 타락의 구렁에 몸을 던져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죽음의 직전에서 절대자의 구원을 받았고 또 결정적인 때에 나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그 절대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여러 종교를 탐문하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는 이슬람교의 코란을 외우며 모스크에 나갔고, 증산도 포교사의 전도에 귀 기울이며 서적도 구해 읽었으며, 불교의 나무아미타불을 이해하려고 고심하며 윤회와 해탈에 대해 생각하면서 사찰의 정적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동생들과 해변에서 야영을 할 때입니다. 그때 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낚시를 하다 늦게 잠들었는데 수평선으로부터 물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으나

그분은 하늘색의 펠릭이는 가운을 입고 두 팔을 벌리며 내 앞에 다가오시더니,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주의 기도를 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서서서 두 팔을 높이 치켜드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뒷모습을 향해 무릎을 꿇고 주의 기도를 외우고 벌떡 일어나 앉으며 꿈에서 깨었습니다.

개신교 재단의 고교시절 이후 25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지낸 주의 기도를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망설임은 계속되었고 그해가 저물었습니다. 새해가 되고 딸아이가 서울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기숙사 추천에서 탈락하여 하숙을 정했으나 마음이 매우 불안하던 중 소원히 지내던 친지에게 간절히 부탁하였더니 선뜻 수녀원 기숙사로 안내해주었습니다. 신앙 여부도 묻지 않고 권하지도 않으며 입사를 허락받고 보니 그때에야 비로소 그분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이 죄인에게도 이토록 은총을 베풀어주시니,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내 탓이요”

김 삼 순(멜라니아)/연지동 성당

세찬 빗줄기 사이를 비집고 육중한 버스는 무주 구천동을 향해 진안 모래재 고개를 이슬이슬하게 질주하고 있었다. 나와 나의 공허가 머물러 있는 빈터에 주님을 모시고 내 가슴팍에 머리를 묻고 통곡하던 대녀의 아픈 마음을 옮겨 보았다. 주님!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신비스러운 자연은 저리도 다소곳이 주님께 순명하는데 당신의 모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추한 몰골로 변해가는지요?

며칠 전 우리 본당에 영세식이 있었다. 본당 수녀님께서 고통중인 이웃이 어렵게 영세를 받게 되었는데 대모를 서주었으면 하고 부탁하시기에 나는 쾌히 응했다. 우리 모녀는 주님께서 내리신 인연이라 여기며 서로 손을 꼬옥 잡고 새로운 만남에 감사하면서 몇 날을 보냈다.

황홀했던 영세식, 주님의 따스한 체온이 대녀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던 어느 날, 양쪽 본당에서 사목위원, 레지오 단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몇몇 똑똑한

올법학자들이 갑론을박.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한 과거를 가진 사람을 영세를 줄 수 있으며, 대모를 서줄 수 있으며, 레지오에 입단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가까스로 주님을 체험한 대녀의 가슴 한가운데에 대못을 찔러 놓고 말았다. 말로써 말 많은 세상, 대녀의 통곡과 역올함인 내 마음까지 뒤흔들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는 않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리의 알파한 신앙. 아직은 헛순보다 더 어린 대녀에게 나는 어떻게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체험시켜줄 수 있단 말인가? 대녀야 참자. 하느님과 나만 너의 결백을 믿어주면 되지 않겠니?

빗속 여행길이었지만 묵상중에 주님께서 요즘 이 세상에 내리신 혼돈의 의미를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이, 열심한 올법학자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분의 가슴에 또 하나의 피자국을 만들어주고 있음.

황수경산부인과

의사 황수경(크리스티나)
산부인과 전문의 이승렬(엘리야)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특별강연>

성공적인 삶의 비결
1월16일(목)오후2시,7시(2회)
장소: 전주 가톨릭센터 대강당
주최: 한국정신과학연구회
연사: 김중배(말시아노)박사
※ 신자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람

RECOLTE
레콜트 (주)동방산업
(숙녀 의류)
중앙동4가7-2(도민원봉사실 앞)
☎ 82-3904
박영목(미카엘)
정진화(미카엘라)

숲정이 제 1000 호 특집

축 하 합 니 다!



마산교구
홍보국장
신정득*신부

‘숲정이’란 아름다운 이름의 전주교구 교구보는 교구의 자랑스런 순교자들의 얼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회수를 거듭해 1000호가 되었고, 그 영향은 교구를 넘어서 한국교회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로써 믿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우는 숲정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정의를 이 땅에 심기 위해 노력해온 주보 ‘숲정이’가 지령 1000호를 맞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여년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신자들 신앙생활의 길잡이 역할과 지역사회에 복음화를 위해 곳곳이 살아온 ‘숲정이’가 하느님 말씀의 전령지로서 계속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교구
홍보국장
김승주 신부

수원교구
총대리
정지웅 신부

1000호를 맞는 전주교구 주보 ‘숲정이’에 축하와 찬사를 보냅니다. ‘숲정이’는 70년대와 80년대의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끈은 목소리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잘못을 지적하며 굽히지 않고 주님 말씀의 전령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진리를 외쳐 ‘숲정이’의 메아리가 모든 이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숲정이’ 지령 1000호를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숲정이’의 무궁한 발전과 하느님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원주교구
사목국장
박호영 신부

제주교구
사목국장
임문철 신부

‘숲정이’ 지령 10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하오며, 아득하신 하느님의 영광과 비천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조화롭게 전하고자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숲정이’에 알알이 맺혀 있는 성령의 열매의 달고 단 향기가 바다 건너 이곳 제주에까지 짙게 풍겨옴에 늘 감사드리며, ‘숲정’을 통해 “회개하라”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과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사도 요한의 속삭임이 독자들의 마음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작은 지면이나 매 주 주님 말씀의 전령이 되어 교구 내 모든 신자들의 눈과 입이 그리고 발이 된 귀 교구보 ‘숲정’의 알찬 내용들이 보석처럼 엮여져 하늘만큼이나 쌓였을거예요. 앞으로 계속 사랑받는 주보, 교회의 정의로운 입, 바른 안내자 되시기를.

춘천교구
교육원장,
주보 편집실 가족

숲정이 6979일에 비친 교구 20년사

1972년 12월 3일, 첫울음을 운 숲정이가 1992년 1월 12일자로 지령 1000호를 내게 되었다. 그간 교구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구 밖에서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6979일의 역사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래도 지금까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마운 분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기쁜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그간의 숲정이를 뒤적여서 간추려 보니, 교구의

역사를 보는 듯한 감회가 있어 새롭기만하다. 아니 이것은 어둡고 지루했던 조국의 한 모습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 짧은 기록은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의 변신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註 :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발행되면 1000호 제작에 6993일이 걸린다. 그러나 성탄 대축일에 숲정이를 따로 제작한 경우가 두 차례 있어 6979일만에 1000호가 나오게 되었다.

* 1972년(숲정의 첫울음)

참으로 어려운 시국에 숲정이가 탄생했다. 그토록 엄청난던 10월 유신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드렸던지 몰라도, 겁없는 출생신고임에 틀림없다. 20년이 다 되는 오늘, 다시 생각해보아도 그것은 분명히 엄청난 모험이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 1973년(새교구장을 모시고)

1년 반이 넘게 목을 늘리며 기다렸던 새교구장(김재덕·아우구스티노 주교)이 임명되었다. 교구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제1지구(고창·김제·부안·신태인·원평·정읍)가 제56호부터 숲정이 제작에 동참했다. 그리고 만화-요십이 (34호), 칼럼-소리 (42호), 만평-숲정이 산책 (47호)으로 숲정의의 모습이 알차게 꾸며지기 시작했다.

* 1974년(교구보로의 발돋움)

숲정이가 선을 뵈지 2년 만인, 102호부터 교구보로 성장했다.

시국은 자꾸만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를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시켜 구속한 것이다. 때마침 열린 전국 성년(聖年)대회에서 김재덕 주교의 시원스런 강론은 많은 공명을 불러일으켰고, 혜화동 로터리에서는 최루탄이 터졌다. 교구 학생회는 조국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당국은 원천 봉쇄의 압력을 가했으나 교회의 지력을 어찌하지는 못했다.

* 1975년(연행의 바람이 일어)

성년인 1975년에 들어 양심수인(良心囚人)을 위한 기도회가 종파를 초월해서 친구교 합동으로 자주 열렸다. 그 여파로 세 사제(문정현·김영신·박종근)가 연행되었다. 성심·해성학교 교직원들의 합동 연수회에서는 동아일보 광고 탄압의 불길을 꺼보자고 성금을 거두어 보내기도 했다.

평신도 사도직 운동을 해오던 사목협의회가 교구 평

신도 사도직협의회(敎區 平協)라는 제 이름을 찾아 창립 총회를 가졌다.

* 1976년(3·1사건의 햇불 올라)

명동 성당에서 열렸던 3·1절 기도회는 이 땅의 민주회복에 기폭제가 되었다. 양심 때문에 침묵할 수 없었던 민주 인사들과 성직자들이 광야의 소리를 지른 것이다. 이 사건으로 문정현 신부가 머리를 깎고 푸른색 수의를 입어야 했다. 역사의 증언록이 된 공판방청기는 숲정의의 지면을 빛냈고, 그 성과를 높여주었다.

해방신학 연수회, 순교자 현양대회, 사상 강연회는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교구 가톨릭 농민회가 탄생되었다.

* 1977년(숲정의 첫시련)

6월26일자 숲정이가 검정 매직으로 분단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향잡지를 인용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철폐되어야 하며” 하는 대목이 긴급조치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숲정이는 당장 끊어오르는 분노를 달래며 내일을 기약하는 매직을 든 것이다.

교구 평협은 ‘소위 정교분리(正敎分離)의 진상’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특강(강사: 김재덕 주교)을 열었다.

* 1978년(종교감 신부 수난의 연속)

성심학교 종교감인 박종상 신부가 경찰에 의해서 길바닥에 버려진 7·6사태가 발생했다. 해성학교 종교감 시절에 수감되었던 문정현 신부는 670일의 긴 옥살이를 마치고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다.

문화공보부는 숲정이에 ‘미등록 불법 정기 간행물 발행 중지 통고’를 보내왔다. 그래도 우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많은 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 1979년(어수선했던 한해)

신품중, 노풍 피해에 따른 보상 요구, 오원춘의 양심선언, 김지하 문학의 밤, Y·H 사건, 부마사태, 10·26과 12·12 등 참으로 어수선했던 한해였다.

7월17일 교구 정평(正平)이 세미나 끝에 발표한 시국에 대한 견해가 문제되어 문정현 신부가 재수감되었다. 9월10일 기도회에서의 김재덕 주교의 강론은 당국과 한국천주교회에 비상을 걸었다. 김 주교의 구속 여부가 문제되어 김 추기경, 윤 대주교, 교황대사, 김 주교가 자리를 함께했고, 사제단은 궁정동을 찾았다. 교우들은 중앙 성당에 모여 두 손을 모았다. 이러한 진통 속에서 '없었던 일'로 매듭짓자는 박 대통령의 마무리가 있었다.

*** 1980년(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유신체제의 종말로 새로운 희망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조짐들은 기어이 광주사태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를 고발하는 강론 때문에 박창신 신부는 한밤중에 쇠망 등이 세례를 받았다. 할말을 잃은 숲정이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라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짙막한 머릿기사가 전부인 이색 편집으로 우리의 슬픔과 분노를 표시했다.

*** 1981년(교구장직 사임의 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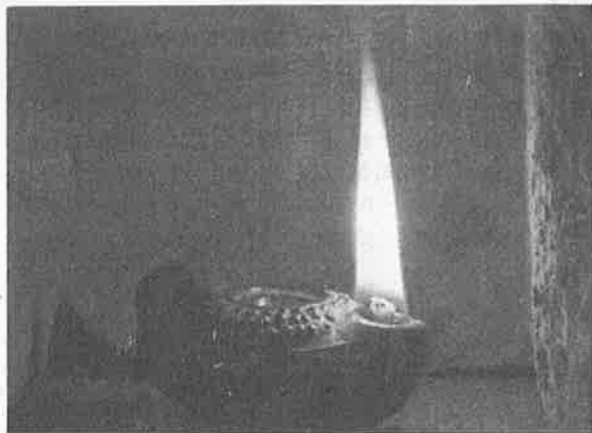
김재덕 주교가 교구장직을 사임했다. 항간에는 70년대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그 빌미가 되었다는 확인할 길 없는 소문도 나돌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 그분의 말씀대로 오직 교회 행정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교구장의 공석 가운데에도 교회는 그 의연한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 사제들은 3주간이나 본당을 비우고 사제 생활 쇄신 연수회를 가졌다. 교우들은 사제 없는 교회에서 평신도가 이끄는 전례에 참여했다.

*** 1982년(새로운 불길)**

일주사태로 최기식 신부가 법정에 섰다. 가톨릭 노동청년회와 도시산업 선교회 등을 일방적으로 용공단체로 매도하는 바람이 거세게 일었다. 숲정이 편집에 대한 시비, 발송된 숲정이의 증발 사고도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에 제6대 교구장에 박정일 주교가 선임되었다. 1년2개월 동안 목자 없이 지낸 교구에 단비가 내린 것이다.



*** 1983년(교구 사목협의회 구성)**

지난해 말에 보도된 오송희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교구 정평의 주장이 발표되었다. 부당 해고된 노동자를 위한 호소문과 주교단에게 보내는 교구 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연명의 건의문도 나왔다.

한국천주교회 2백 주년을 앞두고 교구사와 순교 인물전을 소개하는 편집은 신자들의 정신교육에 큰 보탬이 되었다. 교구단위의 여름산간학교가 치뤄지고, 교구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었다.

*** 1984년(순교자의 영광, 시성식)**

한국천주교회 2백 주년을 맞아 교황성하의 방한으로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 성인이 탄생하는 시성식이 있었다. 우리 교구에도 일곱분의 성인이...

그러나 국내 사정은 여전히 어둡기만 했다. 사제단은 계속되는 근로자 탄압에 대한 결의문을 내고, 숲정이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특집을 12회에 걸쳐서 실었다. 농민 신앙대회가 열리고, 연말에는 세 사제(정승현·김윤섭·방의성)를 해외 선교사로 파견하는 환송미사가 있었다.

*** 1985년(이색적인 소몰이 시위)**

광주의거 추모미사에 참석하려는 문정현 신부에 대한 불법 납치가 있었다. 축산농정에 항의하며 소값 보상을 요구하는 소 101마리와 경운기를 앞세운 소몰이 시위가 고산에서 있었다. 무진장지역 농민 단합대회에서도 소몰이 시위가 있었다. 고산에서 있는 시위로 십자가가 부러지고 문규현 신부가 구타당하기도 했다. 이 시위에 신자는 4백여명, 경찰은 6백여명이 동원되었다.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주년이 '밝히오리다(이사49, 6)'라는 주제로 선포되고, 5개 기념성당 신설과 10만 신자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공소사목을 돕는 '주님의 날'이 선을 뵈어 매달 발간되기 시작했다.

*** 1986년(밝히오리다)**

50주년을 앞두고 10만 성지순례운동과 특별 대사 선포, 여산 성지 축성, 천호 피정의 집 기공식이 있었다. 50주년 기념 사료 전시회 개최, 교구를 소개하는 '밝히오리다' 책자가 발간, 본당 사목회의 개편(4개 분과를 10개 분과로), 반모임 정착을 돕는 월간 '만남'지의 발간,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승격, 교구 청년대회(자, 일어나 가자!)도 장한 일이었다.

개헌 서명운동과 TV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 1987년(자치교구 설정 50주년)**

우리 교구는 50년 전 일제 치하에서 당시 16만 한국 신자들의 축하와 기대 속에서 자치교구로 설정되었다. 자치교구로 설정된 4월13일에는 파가저택(破家猪宅)의 형벌을 받은 유향검 할아버지가 살던 완주군 이서면 초남이에서

교구 설정 기념일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10월1일에는 전주 공설운동장에서 50주년 기념미사와 기념축제가 있었다. 이때에 우리 교구에는 최초의 교황기사가 탄생되기도 했다. 바라던 천호 피정의 집도 축성되었다.

“동장에서 대통령까지 우리의 손으로” 뽑자는 개헌운동, 다시 말해서 대통령 직선제 실현 등을 비는 움직임, 4·13 호헌조치 적극 반대 단식 기도회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부정선거 추방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 1988년(시복 시성운동 추진)**

도내 공무원 모임인 로사리오회는 우리 교구가 남미 페루에 파견한 ‘해외선교사’ 후원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치명자산 개발 기공식도 있었고, 순교자들(윤지충·권상연·유항검·유중철·이순이)에 대한 시복 시성운동의 추진도 있었다. 이해 초여름에는 김재덕 주교가 68세를 일기로 선종하셨다. 또 72년의 역사를 가진 전라도의 자랑거리 건물, 전동 성당이 방화로 여겨지는 화재에 의해서 내부를 버리게 되었다. 안타까운 두 소식이다.

화제가 나기 전인 2월에는 부정조작 대통령 취임 반대 집회가 전동 성당에서 열렸는데, 이때에 두 사제(이수현·김진화)가 폭행을 당하는 불상사가 있어 교구 평협과 사제단은 공개 질의서를 내기도 했다.

*** 1989년(세계성체대회)**

제44차 세계성체대회가 교황성하를 모신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교구장 박정일 주교가 새임지인 마산교구에 부임하셨다. 다시 교구장 공석의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그러면서도 숲정이는 부활 대축일부터 매일 1회씩 타블로 이드판을 찍어냈다. 또 가톨릭 언론인회의 창립, 꾸르실료 운동 도입 20주년 기념 울프레야, 무지개 가족의 집 축성 등 기쁜 소식이 잇달기도 했다.

6월에 문규현 신부는 입수경 양을 보호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정국은 갈수록 경색되기만 했다. 이 사건으로 박병준 신부가 구속되었다. 분단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한 마리 양을 찾아 평양에 간 사제의 순수한 의도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한국적 아픔이 바로 그것이다.



*** 1990년(내 뜻대로 마시고)**

1년 2개월 만에 제7대 교구장(이병호·빈첸시오 주교)이 임명되었다. 그간 너무나 잦은 교구장 공석 때문에 아쉬움이 큰 우리에게서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북대학교 가톨릭 교수회에 이어 중등 교직자 모임도 창립되었다. 전북일보에는 천주교 고정란인 ‘성당의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기쁨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 고장에 동양화학 군산공장이 세워져 공해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우리를 놀라게 했다. 군옥지구 사목협의회는 즉각 공장 철거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파수꾼 역할을 시작한 것이다. 교회의 모습을 지킨 장한 책거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숲정이는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라는 캠페인을 벌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 1991년(성서에의 타는 목마름으로)**

성서교실이 문을 열었다. 신양대학의 실패 역사 때문에 역시나 했는데, 통속적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전주·군산·이리에서만도 천여명이 넘는 수강생이 몰렸고, 연말에 있었던 정규교육 졸업생만도 〇〇〇명에 달했다. 신자들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교회의 현주소가 드러난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국가보안법 철폐·백골단 해체·양심수 석방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제창되었고, 급기야 사제단은 단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지성룡 일병 실종사건에 교구 정평은 예언자 역할을 자칭하고 나섰다. 또한 환경문제의 심각함을 주일학교에서부터 밀도 있게 다룬 것 역시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기순 신부께서는 사제의 외길 50주년인 금경축을 조용히 맞았다.

<소리>

‘소리’란 귀를 자극하여 청각을 일으키는 물리적 대상이다. ‘소리’는 물체의 진동으로 생기며 음파가 되어 퍼진다. (국어사전)

소리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음악이 되기도 하나, 때에 따라서는 울리는 쟁쟁파리마냥 시끄럽기만 하기도 하다.

숲정이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발성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자 함(率口以發)도 아니요, 감언이설(甘言利說)을 하고자 함은 더욱 아니다. 오직 말이라는 것은 수놓은 비단과 같아서 펼치면 모든 무늬가 나타나지만, 접으면 무늬가 감추어지는 동시에 또한 소용없게 되는 것(플루타크 영웅전)이기 때문이다.

<요심이>

‘요셉’의 전라도 말씨가 ‘요심이’다. 이를 굳이 한자로 적어보면 ‘要是非’라고 쓸 수도 있다. 이는 ‘옳고 그름을 가릴 필요가 있음’을 말함이다.

잠 깐! 

“거듭 새로 나아 한다”

교구청에서 살다보면 성탄이나 부활 전 여러 본당에 불려가 으레 판공성사를 주게 마련이다. 지난번 성탄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때 7개 본당 약 700여명 성사를 주었는데 많은 경우 별 마음의 준비없이 성사 보는 신자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짜증스러웠는지 모른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당황하거나 고백성사 보는 방법을 몰라 고백소에 들어오자마자 ‘죄인은 신부에게 강복 하소서’, ‘신부는 죄인에게 강복합니다’ 하면서 사는 게 다 죄니까 신부님이 알아서 사해달란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괜찮다. 왜냐하면 인내심을 갖고 죄를 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니까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백성사 본 시기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고 진정한 뉘우침없이 앵무새처럼 죄를 나열하거나 시종일관 자기 변명을 늘어 놓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피곤하고 짜증스럽다.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느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참회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삶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며 매순간 순간 새로 나아 되지 않겠는가?

오늘은 주의 세례 축일이다. 젊으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 대신 죄를 고백하고, 목은 우리를 새사람으로 바꾸어주셨다. 우리 모두 세례 때의 서약을 되새기며 그 약속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하자.

교 구 소 식

1. 문규현 신부와 구속 방목 인사를 위한 기도회 : 1월13일(월) 오후7시30분 창인동 성당.
 2. 주일학교(초·중·고) 책임자 모임 : 1월 14일(화) 오후2시 가톨릭센터, 대상-보좌신부, 초·중·고 담당수녀 등.
 3. 전주교구 중등교육자회 연수 및 정기총회 : 1월19일 오전9시-오후4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대상-전북지역 중·고 전교직원 회비-5,000원.
 4. 교사학교 : 1차(남전주, 이리, 익산, 김제, 정읍지구)-2월7일~15일, 2차(북전주, 군옥, 임순 남, 무진장지구)-2월17일~25일, 전동 성당 교육관, 대상-초·중·고 교리교사.
 5. 제8차 전주 선택 : 1월24일-26일 나바위 대건 교육관, 대상-젊은 미혼 남녀, 회비-30,000원, 접수-교육국(선착순).
 6. 사진동우회 총회 : 1월19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7. M.E. 소개모임 : 1월18일(토) 오후3시 교구청 별관 3층 M.E. 사무실.
 8. M.E. 제38차 주말 : 1월17일(금)-19일 나바위 대건 교육관.
 9.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교육 : 1월 14일(화) 오전10시30분, 대상-미혼자, 임신이나 피임을 원하는 분, 교구청 별관 4층 행복한 가정운동 85-5098.
- ※ 축! 명명 : 17일(성안토니오) 김진룡, 최용준 신부님 축하합니다.

- **성소모임** 전교가르멜수녀회 : 1월19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0652)74-9262.
 살레시오수녀회 : 1월19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내 평화신문사(062)227-1017.
 착한목지사녀회(피정) : 1월19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02)463-8055.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장시간 집을 비울 때

여러 시간 집을 비울 동안에는 실내 온도를 낮게 조절합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이 평소의 실내 온도를 유지시킬 때 쓸데없이 많은 에너지가 낭비됨을 상기합니다.

태화신발백화점
 신시화·숙녀화
 아동화·복수화 (총판매장·공정직영)
김문식(베드로)
☎ 82-3118
 풍남문, 춘천, 송악국 시거리

대장·항문병(치질) 전문치료
서울의원
 -레이저에 의한 무통 수술로써
 수술 후 평상 활동 가능-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상담전화 75-0550

현대 미용학원
 미용·피부, 본과, 연구과
☎ 86-221, 254-3003
김테레사(금순)
 진북동 제일예식장 맞은 편



교사 초빙

1. 과목 : 국어, 지구과학
2. 구비서류 : 이력서, 호적등본 각 1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대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
3. 제출처 : 전주성심여중·고 사무과
4. 서류제출마감 : 92년 1월17일 (금) 17시
5. 면접 : 92년 1월20일(월)
☎ 84-3244

양재·한복·홀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전안드레아)
 동부시장앞·민정당사면
☎ 86-2715
 * 냉난방 완비

동서로삼익피아노
 피아노, 교회울림관·현악기
 일반 악기, 각종 수입악기 판매
 김태우(알폰소) 황진숙(안젤라)
 동서관통로 다가교 입구
☎ 88-7717~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승 남

1. 꾸리아: 오늘 후2시.
 2. 장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여성 연합회: 15일 어머니미사 후.
 4. 재속 형제회: 18일 후2시.
 5. 성우회: 35세이상~45세이하
 6. 대건회: 45세이상~55세이하
회원모집중-사무실에 접수바람.
 7. 사람의 성금: 50여만원(성령기도회-100,000원 장우회-50,000원 포함) 감사합니다.
 8. 축! 결혼: 19일 후1시 신랑-황의열(바로르) 신부-이찬자
 9. 금주침소: 중노16, 17만 치주침소: 인후1, 2만
- ☐ 지난주 봉헌금: 856,480원 ☐ 교무금: 835,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인

1. 사목회 임원개편: 회장-이상인, 부회장-황길평 정동민, 박상기
총무-나경삼, 선교-송철수, 계경-안철조, 전례-오교성, 교육-지혜룡, 홍보-오희용, 청소년-김현덕, 사회복지-안병주, 여성-윤귀자, 구역-황관급, 감사-전광원, 한광석.
2. 예비지교리: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인-주일 오전9시(수녀님)
직장인-목요일 저녁미사 후(신부님)
3. 대건회 임원: 회장-박노환(안드레아) 총무-정승관(마칸)
4. 회합: ①요셉회(공식미사 후) 부부동반 ②꾸리아(오후2시) ③
청년회(저녁미사 후) ④부녀회(16일 오전10시) ⑤성우회(19일 공식미사 후)
- 성당침소(18일) 바다의 별Pr. 자비의 모후Pr.
금주전례: 최옥남 독서-송철수씨 부부 봉헌-정승관씨 가족.
치주전례: 황관급 독서-이상인씨 부부 봉헌-황길평씨 가족.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 ※ 오늘은 주의 세례축일입니다.
1. 성가정, 청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장년회: 18일 저녁미사 후.
 3. 성서읽기: 요한 II, III서, 유다서, 묵시1장~5장
 4. 금주전례: 해설-김영진 독서①남현준 ②이석남
봉헌-성대진, 이명수씨 부부
치주전례: 해설-여정진 독서①김봉길 ②김규자
봉헌-최상옥, 박동철씨 부부
 5. 구역, 반집연수회: 22일(수)~24일(금)까지. 천호.
 6. 사무장연수: 15(수)~16(목)까지. 천호
- ☐ 지난주 봉헌금: 268,300원 ☐ 교무금: 202,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오늘은 주의세례축일!
1. 회의: ①성심회-1월13일(월) 후2시 ②프란치스코3회-1월12일
(오늘) 오후2시 ③성모회, 다음주(19일) 공식미사 후.
 2. 모임: ①전례부-1월23일(목) 오후8시.
 3. 알릴: ①봉성체-1월22일(수)
②교무금미납되신분은 완납하여주시고 92년도 분미신입하
신분들께서는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③중고등부교리교사 및 지도자를 모집합니다. 뜻있는 분들
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지난주 봉헌금: 712,700원 ☐ 교무금: 669,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본당올드레아: 공식미사 후.
 2. 초·중등부 교리교사 모집합니다.
 3. 첫 영성체교리: 매일 오후2시(18일 어린이미사 중 첫영성체)
 4. 중·고생을 위한 피정: 29일 오전8시-30일 오후5시(1박2일 나
바위교육관: 회비 7,000원, 신청마감 19일)
 5. 서완산동 1가, 2가, 효자마을, 안행동 기타구역 형제모임: 다음주
공식미사 후 3교리실.
 6. 6학년 졸업피정: 15일~16일(1박2일)
나바위교육관(회비: 7,000원)
- ☐ 지난주 봉헌금: 723,130원 ☐ 교무금: 489,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 성전보수현금바람. ※ 관공성사 ※ 92년도 교무금입.
1. 금주모임: ①자모회(오전10시) ②사목회(공식미사 후) ③일치
외모후Cu(오후2시) ④구역봉사자모임(오후7시)
 2. 성모회: 15일(수) 오전11시.
 3. 구역반장회의: 16일(목) 오전11시.
 4. 성가정회 임원개편: 회장-김민주(가타리나), 부회장-문혜준
(유스티나), 총무-장애자(루시아), 서기-백순동(테레사).
 5. 레지오마리에 연합총선특별회: 18일(토) 오후7시 전 레지오마리에
단원 의무참석.
 6. 차주모임: ①바비의 성모Cu(오후2시)
 7. 성가정의 밤: 가족성가경연대회-25일(토) 오후7시.
- ☐ 지난주 봉헌금: 1,753,770원 ☐ 교무금: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환 규

1. 구역반 기도회 순회: 13일~17일 반별로 기도회 시간 보고.
 2. Pr간부 교육: 12일 후2시~4시. 각Pr간부는 의무출석 바람.
 3. 이 아네스 수녀 피정: 13일~22일. 많은기도 부탁드립니다.
 4. 사무장, 사무원 피정: 15일~16일, 천호 피정의 집.
 5. 중·고 교리교사 정기총회: 오늘 학생미사 후.
 6. 제3차 M.E부부 주말 감습회: 17일~19일. 나바위 피정의 집.
문치구 부부, 이병렬 부부, 이수영 부부.
 7. 축! 제37차 M.E부부 주말 감습회 수료: 교복수 부부
조수형 부부, 최원봉 부부, 조장년 부부. 축하 드립니다.
 8. 회의: 청년회-12일 후8시, 성모회-15일 어머니미사 후.
- ☐ 지난주 봉헌금: 827,310원 ☐ 교무금: 1,093,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범 길

1. 성모회·청년회: 오늘미사 후. 2. 울드레아: 14일(화) 오후8시.
 3. 자모회: 다음 주일미사 후 4. 초·중·고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5. 새 사목회원 소개: 회장-한병강, 부회장-김용무, 유대희, 총무-
윤장호, 선교분과-정 철, 전례분과-최정순, 재정분과-구양수, 교
육분과-강병조, 청소년분과-강경식, 사회복지분과-박우순, 여
성분과-김혜화, 홍보분과-양노점, 구역분과-정갑우, 애병분과-
장종규, 감사-박영식, 조계용, 고분-김중호, 박영근. (구역원님
들 수고하셨습니다. 새임원님들은 수고해 주십시오.)
 6. 금주전례: 장병순 독서, 봉헌: 최정순·정병철
치주전례: 김육희 독서, 봉헌: 노영자·전승중
- ☐ 지난주 봉헌금: ☐ 교무금: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이 동 섭

- ※ 성전보수공사를 위해 전신자가 참여합니다.
성전복구 및 성전정화
1. 국교생3~6년 영세 및 첫영성체 교리: 매일 후4~6시 ※ 영세식
18(토) 후2시, 18(토) 후3시 미사 중에.
 2. 축! 꾸르실리스타 40차 형제들(성가정, 류정호, 이유연)
※ 축식식 걸 울드레아 오늘 오후8시(교육관)
지속적인 365일 성체조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3. 모임안내: 모니카회, 테레사회-수 10:30
 5. 91년 미납 교무금 속히 완납해주시고 92년 교무금을 속히 신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전복구사업에 다 함께 참여합니다.
- ☐ 지난주 봉헌금: ☐ 교무금: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1. 울드레아: 저녁미사 후 2. 빈첸시오회: 13(월) 9시미사 후
 3. 은혜의밤: 17(금)~18(토) 강사-광주교구 손아나다시아
 4. 두현공소미사: 17(금) 저녁 5. 반석회 신년등반모임: 12(일) 공
식미사 후 모악산등반 오후2시 정당집합. 모든회원 참석바랍니다.
6. 중·고교리교사 정기총회: 12(일) 9시미사 후 7. 중고등
학생 모악산 등반: 19(일) 학생미사 후 출발.
차주모임-ME 정기총회 19(일) 공식미사 후.
신축현금봉헌액-3,530,000원
금주전례: 해설-김광민 독서①최승묵 ②장정연
기도①오영표 ②박준화
치주전례: 해설-정이룡 독서①강택수 ②이찬우
기도①손효성 ②이정우
- ☐ 지난주 봉헌금: 1,267,460원 ☐ 교무금: 1,757,000원